

서울시 민선7기 공약사항

비전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여는 서울

정책목표

미래특별시

도시를 키우는
미래산업으로
서울이 한단계
도약합니다.

상생특별시

서울 어느 곳이든
더불어 잘 사는
서울이 됩니다.

사람특별시

서울이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을
함께 돌봅니다.

안전특별시

안전한 도시를
위한 서울의 노력이
계속됩니다.

일상특별시

시민의 하루하루가
빛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특별시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열린 서울이
됩니다.

마포구 민선7기 공약사항

비전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전략과제

정책목표

고르게 발전하는
사람중심도시관광산업활성화
교통 낙후지역 해소내 삶을 책임지는
튼튼한 도시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튼튼한 교육과 보육
실질적 성평등사회
평생 직업교육혁신
예술인 창작권 보장남북 번영시대를
여는 기회의 도시활력 넘치는 일자리 경제
남북교류 활성화안심하고 살아가는
친환경 안전도시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동물보호 수준 제고지방자치 선도하는
유능한 도시365일 소통하는 마포
열린 혁신행정
마을자치 활성화

제7기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 국가-중앙-광역-기초의 기본 정책방향인 온 국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고 계층과 지역에 차별 없이 나란히 누리는 건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 마포구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소통과 혁신으로 차별 없는 건강 마포」로 설정하고
- 비전 실현을 위하여 「건강형평성 보장」, 「건강수명 연장」, 「참여·소통·혁신」을 중장기 목표로 제시

목표	정책방향
건강형평성보장	모든 마포 구민이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차별 없는 마포 구현
건강수명연장	모든 마포 구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에 걸린 후 치료 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예측하고 발병 자체를 차단하여 건강 마포 실현
참여·소통·혁신	소생활권 중심의 민간참여 건강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 연계는 물론건강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보건 전달 체계를 구축

1-2 마포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마포구는 지역현황 분석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를 통해 '건강형평성 보장' '건강수명 연장' '참여·소통·혁신'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마포 구민이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고 계층과 지역에 차별 없이 나란히 누리는 건강한 마포를 구현하고자 함

목표 1

건강형평성 보장

정책방향 사회 경제적 지위와 지역에 따른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형평성 보장

모든 마포 구민이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여 소통과 혁신으로 차별 없는 마포 구현

건강취약 지역별·인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마포구는 낙후된 주거지에서 탈피하여 첨단 디지털 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친환경 주거지가 어우러진 신흥 중심 지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주거지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저소득 취약 계층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보건서비스 요구외에 중산층의 다원화된 보건서비스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별 의료 취약계층 인구비율과 건강행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요구됨

정책 방향

마포구 관내 지역현황 분석에 따른 16개 동을 지역별로 4개 동씩 4개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로 지역특성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및 연계하여 지역간 건강 격차 해소



- 1권역 : 아현동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지리적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아현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 2권역 : 치매지원센터(치매관리 사업/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서강동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 관리 등 통합적인 시스템을 운영 중인 치매지원 센터를 통한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 사업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서강분소를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건강증진사업 역량 강화
- 3권역 : 서교동마을건강센터(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문화예술과 상업기능 중심지역으로서 병의원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교동 마을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을 지원하는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4권역 : 보건소(방문보건 사업)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사회연결망분석 상위조직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밀집해 있으므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한 방문보건사업으로 의료취약인구 대상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1:1 맞춤형 사업과 생활터별 사업으로 통합적 추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1권역 : 아현동마을건강센터/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
⇒ 전략3-4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강화
- 2권역 : 치매지원센터(치매관리 사업/ 보건지소(건강증진사업))
⇒ 전략3-2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 전략3-4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강화
- 3권역 : 서교동마을건강센터(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 전략1-2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 전략3-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 4권역 : 보건소(방문보건 사업)
⇒ 전략3-2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 전략3-4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강화

의료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통한 의료안전망 강화

마포구의 2012~2015년 소득수준간(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기대수명 격차는 5.1년 차이이며 건강수명 격차는 9.9년 차이로 사회경제적 지위나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원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건강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정책 방향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소득수준 및 의료비 발생 정도에 따라 의료비를 차등 지원하여 빈곤가구로 추락을 예방하고 의료비 지원받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증진 및 재입원으로 인한 치료비 절감 추진하여 경제적 건강격차 해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1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2017년 마포구의 고령인구(49,356명)는 유소년인구(43,580명)를 역전하여 노인인구 비율은 이미 고령화사회(7%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이상)로 진입 직전(2017년 13.16%)이며 전체 노인 중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은 89.5%로 나타났으며 향후 노인의 의료비 부담 가중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취약 계층인 노인을 위한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이 필요함

정책 방향

허약노인에 대하여 집중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위험 허약노인 판정률을 2022년까지 26.5%로 감소시켜 장기요양 상태 진입을 예방하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을 통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연계 서비스를 구축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1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전략3-4 주민참여기반 보건-복지-의료-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강화

저 출산 시대 대응한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투자 확대

마포구의 2017년 출생아수 2,812명, 합계출산율 0.806명으로 초저출산 현상 가속 및 만혼추세로 인한 고령 산모의 증가로 모성사망 증가 등 부정적인 출산결과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임산부와 그 가족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여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요구됨

정책 방향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강 협편 정책으로 건강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보건의료 정책의 산전-아동기 개입하여 임신전부터 육아까지 공평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 건강의 기반이 되는 '건강한 출발'(Healthy Life)'을 도모하고 '엄마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한 마포' 구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 전략2-1 생애 초기 건강투자 확대로 건강한 미래세대 형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격차 해소 정책 수행

건강행태별로 소득 및 교육수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여 남자의 현재 흡연율은 판매·서비스직인 경우(45.5%)와 전문행정관리인 경우(27.3%)의 격차 18.2%p, 1.67배 차이를 보였고, 남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판매·서비스직인 경우(46.9%)와 전문행정관리인 경우(19.4%)의 격차 27.5%p, 2.42배 차이를 보였으며, 자살 생각률은 무학인 경우(23.9%)와 대학교이상(3.6%)경우의 격차 20.3%p, 6.64배 차이를 보였고, 비만율은 남자(30.1%)가 여자(14.8%)보다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함

정책 방향

사회적 계층간 건강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교육 수준 및 직장 등)에 따른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마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1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목표 2**건강수명연장****정책방향****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삶 연장**

모든 마포 구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병에 걸린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닌 질병을 예측하고 발병 자체를 차단하여 건강 마포 실현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마포구의 만성질환(비감염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총 사망자의 47.9% 차지하고, 사망원인 상위 5개 중 3개가 만성질환이 차지하고 있어 이는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높아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이 요구됨

정책 방향

비만 등 대사증후군 증가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도 더욱 가속화가 예상되므로 생활 습관 개선 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강화 및 다각적 주민 접근 노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확대로 마포구민의 건강수명 연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 전략2-3 건강생활습관 실천 확산을 통한 구민 건강증진

사전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

마포구의 건강보험가입자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74.95%)은 서울(74.88%)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77.57%)보다 2.6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마포구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32.55%)은 서울(32.82%)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38.78%)보다 6.23%p 낮게 나타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한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정책 방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고 검진 사후 건강행태 개선을 실시하여 2022년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35%까지 향상시키고 생애 전화기 건강 검진 수검률은 44%까지 향상시켜 모든 구민이 건강한 마포 실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서비스 강화
⇒ 전략2-2 사전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능력 강화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마포구의 최근 3년 인구 10만명당 감염병 발생 수는 상승추세이며, 2017년 196.21명으로 서울시 195.01명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감시체계 강화와 대상자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사전예방 하고자 함

정책 방향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병의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및 주소병원의 감염관리 역량 강화로 안전한 병원환경을 조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2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재난 및 응급 의료서비스 강화

마포구내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와 심장정지 발생률이 증가되고 있어 재난 및 응급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정책 방향

지역 내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이 주민을 살리는 응급대응 교육을 강화하여 응급상황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의료지원 및 신속·상시대응체계 구축하여 건강한 마포 구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3 재난 및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확보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및 안전사고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으며 마포구의 식품위생업소 12,318개소, 공중위생업소 1,911개소, 약업소 1,213개소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 업소수가 많은 편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정책 방향

최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보건의료안전성과 관련된 환경개선 요구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식품안전, 공중위생 및 의료안전 등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 의료 환경이 개선 되도록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통하여 마포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마포구민 건강안전망 구축
⇒ 전략1-4 건강위해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환경조성

목표 3**참여 · 소통 · 혁신****정책방향****참여 · 소통 · 혁신으로 공공-민간 협력 강화로 사업 효과 극대화**

소생활권 중심의 민간참여 건강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자원 연계는 물론 건강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보건 전달 체계를 구축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

마포구의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 유병률이 2008년 18.0%에서 2017년 21.7%로 당뇨병 유병률이 2008년 18.0%에서 2017년 21.7%로 증가하고 있어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정책 방향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마포구는 보건소-민간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만성질환 주치의사업을 운영하여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교육, 안내, 조정 등 안내자 역할을 강화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전략3-1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구민의 수요 및 중요도를 고려한 어르신을 위한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

주민요구도 조사시 마포 구민은 보건소가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생애 주기별 연령대를 65세이상 노인을 최우선(35.4%)으로 꼽았으며, 노인 건강문제중 가장 해결 노력이 필요한 사항 설문에서는 치매예방 및 관리(3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4년간 가장 중점적 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로 치매관리(23.5%)를 1위로 선정함

정책 방향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조직정비로 예방, 검진, 치료 및 돌봄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 초기단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 전략1-1 고령사회 대비 의료-돌봄-관리체계 강화